

## 은폐된 은유

김영욱\*\*

### 장 스타로뱅스키와 멜랑콜리 연구\*

**초록**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1960)에서 『멜랑콜리의 잉크』(2012)까지 반세기 이상 수행한 연구를 통해 장 스타로뱅스키는 멜랑콜리의 대표적 관념사가가 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같은 대상을 의학과 문학사 양쪽에서 길게 조사한 제네바대학 교수에게서 멜랑콜리의 규정, 역사, 함축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이다. 논문은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에서 멜랑콜리 현상과 은유의 본질적 관계를 추출하여 그것을 ‘은폐된 은유’라는 관념으로 규정한다. 그런 다음 『비평의 관계』(1970)를 중심으로 멜랑콜리의 역사에서 과학적 언어와 시적 언어의 분화라는 근대성의 조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검토한다. 이 역사적 조건 위에서 멜랑콜리는 두 언어의 교착을 통해 근대적 주체성이 고안되는 양태가 된다. 이 명제를 지지하는 사례가 문학과 의학과 연구 양쪽에서 침부된다. 『운동하는 몽테뉴』(1960)와 『거울에 비친 멜랑콜리』(1989)가 문학비평의 사례고, 『비평의 관계』에 수록된 의학과 논문 두 편이 과학 담론 연구의 사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수기를 하나의 장르로 진지하게 다룰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스타로뱅스키의 멜랑콜리 연구가 가진 함축을 밝히고 동시에 그의 사유에 한 가지 증거를 추가한다. 개인과 사회, 정신과 신체, 자연과 문명 등의 본질적 관계를 은유라는 형식으로 문제시하는 멜랑콜리의 사유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유럽 의식의 주요 토대다. 특히 스타로뱅스키는 개별 사례들을 유심히 살피며 이 문화적 패러다임의 근대적 양상을 추적한다.

**주제어** 멜랑콜리, 문학사, 비평, 상상, 우울증, 은유, 의학과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학문진흥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사업’의 후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물임.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 1. 하나인가, 둘인가?

장 스타로뱅스키(Jean Starobinski)에게 멜랑콜리는 무엇인가? 의사이자 문학비평가였던 제네바대학 교수의 긴 멜랑콜리 연구는 의학사와 문학사 양쪽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20세기 중후반 그로 인해 풍성해진 멜랑콜리 연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막 시작한 논문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것이다. 우선 멜랑콜리에 대한 근대인의 문제의식을 확인하자. 멜랑콜리는 하나인가, 둘인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질병의 이름인 동시에 시적 능력의 이름이었던 것을, 근대 사회는 더 명확히 구별하고 분리하려 한다. 이 분리는 정당하고 이로운 것인가? 과학과 의학의 대상으로 한정된 “우울증”(depression)과 일상은 물론이고 예술에서도 낡은 유물이 된 “멜랑콜리”(melancholy)는 안전하게 다른 영역에 귀속되었는가? 오랫동안 다양하게 시도된 객관화와 과학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다만 이 혼동 혹은 저항이 누군가에게는 극복해야 할 것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피터 D. 크레이머(Peter D. Kramer)는 언어와 문화에서 끈질기게 뒤섞여 유통되는 두 단어 혹은 관념이 의학적 치료의 중대한 방해물이라고 믿는다. 그는 “우울증 치료를 이야기할 때면 2천 년 동안 쌓인 고결한 멜랑콜리의 가치와 싸우는 듯한 느낌이 자주 들었”<sup>1</sup>다고 회고한다. 긴 혼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울증을 “보편적 은유”<sup>2</sup>로 삼는다. 의학적 관점에서 엄격히 분리되어야 할 현상들이 무분별하게 “우울증” 혹은 “멜랑콜리”로 지칭된다. 물론 질병의 이름으로 문화적 현상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울증의 경우에 은유는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과도하다. 모호하게 지속되는 낭만적 감정에, 그것과 상관없는 우

1 피터 D. 크레이머(2006), 고정아 역, 『우울증에 반대한다』, 플래닛, p. 263.

2 피터 D. 크레이머(2006), p. 264.

울증이라는 특정 질병을 연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자폐, 뇌전증, 조현병에서는 은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독 우울증에 관대한가? “왜 하필 우울증이 적절한 은유인가?”<sup>3</sup> 크레이머는 이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편의 대표적 인물로서 프랑스의 고대 문헌학자 자키 피조(Jackie Pigeaud)가 있다. 그는 고대 철학과 의학 텍스트를 오래 검토하는 와중에 강한 어조로 말하곤 한다. “나는 이것을 말하고, 지겨워하지 않고 반복할 것이다. 개념으로서의 멜랑콜리, 병명으로서의 멜랑콜리를 삭제하여 그것을 다른 명찰 아래 위치한 증상들로 분배하려는 정신의학을 불신해야 한다.”<sup>4</sup> 이 “정신의학”에는 DSM(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과 그 추종자들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그는 “멜랑콜리의 심오한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sup>5</sup>하기 때문이다. 통일성은 두 가지를 함축한다.<sup>6</sup> 첫째, 멜랑콜리는 하나의 문화로서, 유럽인에게 “자기를-스스로-느낌”(se-sentir-soi-même)의 발생과 역사를 구성한다. 적어도 서구인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멜랑콜리라 불리는 어떤 느낌 혹은 체험을 통해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고민했다. 둘째, 이러한 멜랑콜리 문화는 기원전 5세기와 기원후 1세기 사이 생산된 일련의 “의철학적”(médico-philosophique) 문헌에 토대를 둔다. 정신과 신체를 불가분의 관계에 두면서 언제나 그것을 문제로 삼는 “멜랑콜리의 사유”(pensée mélancolique)는 이 특정 “문화-상상 불가타” 위에 건설되어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기원과 기본 요소를 한정된 문헌 안에서 조사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의학적 우울증 그리고 그에 대한 집단적 경험과 환상의 축적물인 멜랑콜리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근대인의 이성과 과학이 발전하지

3 피터 D. 크레이머(2006), p. 283.

4 Jackie Pigeaud (2008), *Melancholia*, Paris: Payot & Rivages, p. 20.

5 Jackie Pigeaud (1984), “Prolégomènes à une histoire de la mélancolie,” *Histoire, économie et société* 3.4, p. 509.

6 Jackie Pigeaud (1984), pp. 509-510.

않았냐고 한탄한다. 우리는 실재와 은유를 구별해야 하고, 은유에 지배되는 비과학성을 반성해야 한다. 반대쪽에서는 우울증으로 불리든 멜랑콜리로 불리든, 그것은 역사의 특정 시기에 형성되어 지속되고 있는 단일한 문화의 패러다임이다. 이때 실재와 은유는, 마치 신체와 정신의 관계가 엄청난 지성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이 절단될 수 없다. 오히려 둘은 언제나 하나의 복합체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실재와 은유 사이, 멜랑콜리의 정확한 지위는 어디인가? 기원전 5세기 『잠언』(*Aphorisms*)에서 히포크라테스가 ‘phobos’(공포, 위축)와 ‘dysthymia’(비애, 낙담)의 지속으로 정의한 증상에 대해, 고대인들은 흑담액(黑膽液)이라는 상상의 체액을 원인으로 상정했다. 그들은 원인이 되는 물질 즉 “멜랑콜리”(melancholia)를 증상의 이름으로 정했다. 흑담액과 4체액론은 18세기까지도 멜랑콜리 상태를 해명하고 치료법을 제안할 때 주요 설명체계였다.<sup>7</sup> 한편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소론집』(*Parva naturalia*)과 그의 영향 아래 5세기경 작성된 『문제』(*Problems*) 등에서, 멜랑콜리는 뛰어난 사람들의 기질이며 시적 재능의 신비한 원리다.<sup>8</sup>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인문주의자이자 의사인 마르실리오 피치노(Marsilio Ficino)는 멜랑콜리의 창조적 힘을 다시 강조할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실재와 은유 사이 멜랑콜리는 질병과 능력의 관계로 온전히 환원되지 않는다. 스토아철학과 함께 ‘taedium vitae’(삶의 권태)가, 기독교와 함께 ‘acedia’(나태)의 죄악이, 점성술과 함께 “토성의 아이들”

7 고대에서 르네상스까지 유럽의 의학, 철학, 예술에서 멜랑콜리 관념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전의 자격을 잃지 않은 작술, 클리방스키, 파노프스키의 저작을 참고하라. Cf. Raymond Klibansky, Erwin Panofsky, and Fritz Saxl (2019), *Saturn and Melancholy*, new edition, Montreal&Kingston; London; Chicago: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한국어 해설로는 다음 개론서가 있다. Cf. 박혜정(2015), 『멜랑콜리』,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8 자키 피조는 이에 대한 풍부한 해설을 제공한다. Cf. Aristotele (2006), *L'homme de génie et la mélancolie*. Problème XXX, 1 (ed. Jackie Pigeaud), Paris: Payot & Rivages.

이 멜랑콜리 문화에 통합된다. 의학의 편에서도 사태는 복잡하다. “멜랑콜리”는 수많은 증상의 병명이 되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른 병인을 갖는다. 또한 멜랑콜리의 원인과 치료에서 물질적 토대와 정신적 토대의 미묘한 관계는 고대부터 관찰되었으며, 18세기 이후 성립한 근대 정신의학은 멜랑콜리를 더 엄밀한 과학적 대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면서도 몸과 정신 사이, 생물학적 인간과 문화적 인간 사이 관계에 끊임없이 천착했다.<sup>9</sup> 멜랑콜리 상태에서 몸과 정신, 자연과 문화 중 하나가 실재가 되면 다른 하나는 기꺼이 은유 역할을 맡는 것 같았다. 게다가 이 항들은 사례마다 너무 쉽게 역할을 바꾸었다.<sup>10</sup>

명시적으로 스타로뱅스키의 멜랑콜리 연구는 1960년 출판된 그의 의학 박사 논문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Histoire du traitement de la mélancolie*)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3년 전 출간된 문학박사 논문 『장-자크 루소: 투명성과 장애물』(*Jean-Jacques Rousseau: la transparence et l'obstacle*)에서 그는 멜랑콜리의 고전적 담론이 무너지고 있던 18세기에 한 철학자에게서 멜랑콜리 개념의 표현과 전용을 검토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는 문학과 의학을 오가는 멜랑콜리의 관념사가였다. 이러한 지적 여정은 여러 기사와 저서를 거쳐 2012년 나온 모음집 『멜랑콜리의 잉크』(*L'encre de la mélancolie*)까지 닿는다. 짧은 논문에서 멜랑콜리와 관련된 스타로뱅스키의 모든 연구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방금 제기한 멜랑콜리 관념의 일반 문제에 스타로뱅스키가 기여한 것을 지적하고, 몇몇 사례만으로 멜랑콜리와 근대성 연구에서 그의 고유한 관념사적 작업을 강조하며, 그의 오랜 탐구 덕에 멜랑콜리의 깊

9 이에 대해 여인석이 두 논문을 써 둔 것은 한국어 독자들에게 행운이다. Cf. 여인석 (2020), 「멜랑콜리 개념의 기원과 분화를 통해 본 몸과 마음의 관계」, 『의철학연구』 29, pp. 53-75; 여인석(2021), 「근대정신의학 성립기의 멜랑콜리 개념의 분화」, 『연세의사학』 24(2), pp. 61-81.

10 자키 피조는 그의 경력 내내 이 관계를 탐구했다. 몇 권만 예로 들자. Cf. Jackie Pigeaud (2008); Jackie Pigeaud (2006), *La maladie de l'âme*, Paris: Les Belles Lettres; Jackie Pigeaud (2005), *De la mélancolie*, Paris: Dilecta.

이에 친숙하게 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멜랑콜리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을 가늠해 볼 것이다.

멜랑콜리는 오래전 폐기된 체액론과 1950년대부터 개발된 약물이 의학 교과서에서 지워 버린 단어이자, 곰팡내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시인도 선불리 손댈 수 없는 단어다. 하지만 혼자 있는 방에서, 병원에서, 풍경과 그림 앞에서, 사람들 곁에서, 여전히 우리는 멜랑콜리 안에 있고 멜랑콜리를 고민하고 멜랑콜리와 하나다. 이 당연한 사실을 한 번 더 말하고 싶다.

## 2. 멜랑콜리: 은폐된 은유<sup>11</sup>

멜랑콜리라는 은유는 부당한가? 그렇지 않다면 멜랑콜리는 언제나 은유와 함께, 은유와 풀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고찰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스타로뱅스키의 입장은 후자에 가까운 듯하다. 의학사가로서나 문학비평가로서나 그는 흑담액 이미지나 문학적 능력에 대한 검토 없이 멜랑콜리 관념을 규정할 수도, 그 역사를 추적할 수도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또한 그는 이 이미지가 비과학적 은유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피조가 고대인의 관점에서 멜랑콜리의 역사를 내다본다면, 스타로뱅스키는 자신이 근대인임을 부정하지 않으며 근대성의 토대로서 과학을 의심하지 않는다.

멜랑콜리에 대한 그의 기본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의학사 연구인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에서 시작하자.

스타로뱅스키는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멜랑콜리는 은유일 뿐이다. 이때 시적 능력과 같은 창조적 힘만이 멜랑콜리의 은유인 것은 아니다. 의학

11 이 절은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 한국어 번역의 옮긴이 해제 「멜랑콜리, 은폐된 은유」와 일부 주장을 공유한다. Cf. 장 스타로뱅스키(2023), 김영욱 역,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 인다, pp. 189-201.

적 사유 안에서 오랫동안 멜랑콜리의 실체라고 여겨진 흑담액조차 상상의 산물이고, 따라서 어떤 것의 은유였다. 먼저 의문이 생긴다. 멜랑콜리가 은유라면 그것은 무엇의 은유인가? 우리는 멜랑콜리의 실체를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보기보다 어려운 고찰을 요한다.

흥미롭게도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 첫 장은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호메로스에서 시작한다. 목적은 의학사에 포섭되지 않는 이미지를 통해 멜랑콜리의 본질을 추론하는 것이다. 논점은 두 가지다. 첫째, 스타로뱅스키는 호메로스의 영웅 벨레로폰으로부터 멜랑콜리의 본질을 추출한다. 이 영웅은 알 수 없는 까닭으로 신의 노여움을 사고 철저한 “고독”에 빠진다. 이 완전한 소외에는 이유도, 내용도, 합리적 방안도 없다. “벨레로폰에게는 모든 것이 멀어짐, 부채다.”<sup>12</sup> 멜랑콜리의 본질은 관계의 불가능성이다. 그는 혼자이고, 사회에 이질적이다. 그렇다면 멜랑콜리는 역설적 은유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은유가 떨어진 둘을 연결하는 행위인 한에서, 멜랑콜리는 관계가 불가능한 것에 부여된 관계 혹은 그러한 부여 작업이기 때문이다. 둘째, 스타로뱅스키는 호메로스가 제시하는 치료제의 이미지를 분석한다. 미의 화신인 헬레네가 건네는 약초 이미지는 멜랑콜리에 대한 대응이 어떤 것에도 의지할 수 없는 인간의 자구책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은 물질과 정념, 신체와 영혼의 신비한 복합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음료를 베풀어 줄 아름다운 손이 그 자체로도 마력을 가진 약제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증가시킬 것이 확실하다.”<sup>13</sup> 멜랑콜리 치료제는 사랑하는 여인이 건네주는 약초다. 관계의 부정애, 근본적 관계가 개입한다.

멜랑콜리는 관계의 어려움과, 그렇지만 그것에 부여된 관계를 동시에 의미한다. 멜랑콜리에 대한 대응은 인간의 본질적 관계에 대한 천착이다. 불가능한 동시에 본질적인 은유로서, 멜랑콜리는 인간에게 은유의 모든 가

12 장 스타로뱅스키(2023), p. 18.

13 장 스타로뱅스키(2023), p. 19.

능성과 어려움을 내포한다. 그런데 최소한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에서 스타로뱅스키는 압축적으로 제기한 은유의 문제를 자키 피조가 하는 것처럼 다각도에서, 심도 있게 파고들지 않는다. 그보다 그가 해명하려는 것은 이러한 멜랑콜리의 특성이 우리 근대인에게 주는 인상이다. 이제 주목할 곳은 책의 한가운데 위치한 「잔존」 장이다.

흑담액이든 시적 능력이든 은유인 이상 멜랑콜리는 상상의 산물이고, 근대적 과학성과 대립한다. 스타로뱅스키가 멜랑콜리 의학사를 시작하면서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를 호명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멜랑콜리에 대한 고대인의 체액론적 해명을 소개하고 나서, 그것이 프랑스 과학철학자가 말한 “실체적 상상”(imagination substantielle)의 좋은 사례라고 덧붙인다.<sup>14</sup> 바슐라르는 1938년 『과학정신의 형성』(*La formation de l'esprit scientifique*)에서 전근대의 비과학적 사유가 은유를 은유로서 객관화하지 못한 채 은유의 “자율적 사유”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미지를 수용하는 과학은 다른 어떤 과학보다 더 은유의 희생자다. 따라서 과학정신은 이미지, 유비, 은유와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sup>15</sup> 이렇게 보면 고대인들은 흑담액이라는 은유를 실체로 인식하고, 이 실체의 상상적 속성에 기초하여 의학적 실천을 조직했다. 그들에게는 오류를 바로잡을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스타로뱅스키에게 멜랑콜리 이미지의 비과학성과 그것의 정확성은 양립할 수 있다. “흑담액은 우리가 멜랑콜리와 멜랑콜리 상태의 인간을 통해 직접 경험한 것이 이미지로 압축된 것”이며, “오늘날에도 상징과 표현으로서 흑담액 이미지의 적합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sup>16</sup> 흑담액 이미지의 구성요소인 어두움, 끈적임, 무거움 등은 멜랑콜리 증상의 보편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한다. 스타로뱅스키는 과학적 반성을 체화하여 체액론을 비롯한 근대인이 멜랑콜리 현상을 기술할 때는 언어적으로나 관념

14 장 스타로뱅스키(2023), p. 21.

15 Gaston Bachelard (1996), *La formation de l'esprit scientifique*, Paris: Vrin, p. 38.

16 장 스타로뱅스키(2023), p. 75.

적으로 여전히 같은 요소에 의지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근대인의 암묵적 체액론은 미성숙한 “과학정신”의 증거라기보다, 흑담액 이미지의 인간학적 유효성을 입증한다. 체액론적 멜랑콜리 의학이 2천 년 동안 유지될 수 있던 것은, 보편적이고 유효한 이미지에 토대를 둔 진단과 처치가 종종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비과학적이지만 유효한 은유. 스타로뱅스키는 멜랑콜리 연구의 영역을 상상의 인간학으로 설정한다. 그렇지만 문화 혹은 인간의 활동으로서 멜랑콜리를 사유할 때 더 중요한 사실은 멜랑콜리가 오랜 기간 실제로 인식되고 조작된 은유였다는 것, 즉 그것이 은폐된 은유였다는 것이다. 스타로뱅스키의 통찰은 비길 데 없이 흥미롭다. “흑담액은 자신이 은유라는 것을 모르는 은유이고, 그래서 자신을 경험적 사실로 내세우는 은유다.”<sup>17</sup> 멜랑콜리 관념에서 상상적인 것은 실체, 사실, 경험의 외양을 두르고 있다. 멜랑콜리는 언제나 물질, 신체, 자연과 분리할 수 없으며, 이 항들과 분리되지 않는 한에서 작동하는 상상의 원리다. 멜랑콜리는 그것을 신체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의학적 사유와의 관련 속에서 은유로 존재하며, 은유의 힘을 발휘한다.

멜랑콜리는 객관적 실체, 과학적 방법 속에서 작동하는 은유, 상상적 관계다. 실체가 은유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실체 뒤에 은유가 있다. 어쩌면 멜랑콜리 현상에서는 실체가 외면이고 은유가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역설적 관계는 멜랑콜리에 “알레고리적 가치”(valeur allégorique)<sup>18</sup> 혹은 알레고리로서의 힘과 효능을 부여한다.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에서 이 “가치”는 요법의 영역에서 검토된다. 근대 의학은 전근대 체액론의 순진한 자연주의를 비난하면서, 사실상 옛 의사들이 신체의 영역에서 하던 것을 자아와 심리에 대해 할 뿐이다. 반대로 전근대 의학은 실체

17 장 스타로뱅스키(2023), p. 75.

18 장 스타로뱅스키(2023), p. 76.

적 치료를 한다고 믿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 두 의학과 그들이 겨냥하는 신체와 정신은 “번역” 관계에 놓인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어느 것이 원본인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게다가 이 역설적 관계는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가 문학의 역사와 별개일 수 없음을 암시한다. 대개 의식되지 않아도, 결국 치료의 역사는 은유에 대한 대응으로서 문학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멜랑콜리 환자가 감정으로 보인다면 밝은 색조의 물질을 주입해야 한다, 등등.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에 수많은 작가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에서 스타로뱅스키는 멜랑콜리와 은유가 맺는 본질적 관계를 단편적이지만 섬세하게 조명한다. 어떻게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어도 멜랑콜리는 정확한 은유의 힘을 행사하며, 은유가 아닌 것과 은유의 존재방식을 오가며 그렇게 한다. 이에 대해 근대성은 핵심적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우리 근대인은 은유가 아닌 것과 은유를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구별하고 차별화하려는 의지를 느끼기 때문이다.

### 3. 근대성과 비평의 임무: 시적 언어와 과학적 언어

자키 피조는 멜랑콜리를 문화적 현상으로 보는 관점과 의학적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결국 같은 대상을 바라본다고 강조한다. “의학과 철학의 차이는 관점이지 사물(chose)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sup>19</sup> 스타로뱅스키에게 사태는 더 복잡하다. 근대세계에서 어쩌면 그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인은 “과학/시 2개 국어”(bilinguisme science/poésie)<sup>20</sup> 사용자이며, 이 조건을 통해 자아와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본질적으로

19 Jackie Pigeaud (1984), p. 510.

20 Jean Starobinski (1977), “Langage poétique et langage scientifique,” *Diogenes* 100, p. 151.

다른 두 언어가 세계를 양분한다면 멜랑콜리의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sup>21</sup>

스타로뱅스키의 1977년 논문 「시적 언어와 과학적 언어」(Langage poétique et langage scientifique)는 근대가 맞닥뜨린 이 2중 언어 구조에 대한 역사적 일별이다. 18세기 중엽 과학적이고 객관적임을 자부하는 언어가 자신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감각”(sensation)에 기초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감성론적 언어를 전개한다. 하지만 스타로뱅스키는 일반적 선입견과 달리 두 언어의 분리가 같은 세계를 두고 벌이는 다툼이 아니라, 일종의 “분할”(partage)이자 “이중화”(doubler)라고 생각한다. “[풍경의 미학적 발견]은 과학의 환원적 방법에 대한 항의라기보다, 과학의 결과인 기술적 통제 덕분에 비어있는 자유와 공간의 활용이다. 덜 위협적인 것이 되어 지속적인 투쟁을 덜 요구하는 자연은 자신을 향유의 대상으로 내놓는다.”<sup>22</sup> 두 언어 덕분에, 세계는 객관적 대상화의 대상이자 감각적 향유의 대상이 된다.

물론 두 언어 각각은 세계의 분열에 불만을 느낀다.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서 세계의 단일한 토대를 발견하고 확인하려 한다. 우리는 과학적 언어가 어떻게 그 작업을 추진하는지 보았고, 보고 있다. 근대의 시적 언어는 감각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신체 내적”(intracorporel) 차원에 진입하여, “모든 분할에 ‘이전에’, 과학이 자신의 방법과 영토를 규정하기 전에, 존재자가 세계 내 현존 안에 나타나도록 하는 단일한 토대”<sup>23</sup>를 탐구한다. 스타로뱅스키는 누릴 수 있는 세계를 두 배로 만드는 두 언어 각각의 근본적 추구를 폄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추구는 어디까지나 “분할과 양분의 정도에

21 최근 한 연구는 언어의 분할 문제가 스타로뱅스키 사유의 통일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이 연구에 동의함을 보게 될 것이다. Cf. Aldo Trucchio (2021), *Les deux langages de la modernité. Jean Starobinski entre littérature et science*, Lausanne: Éditions BHMS.

22 Jean Starobinski (1977), p. 149.

23 Jean Starobinski (1977), p. 155.

비레”<sup>24</sup>하기에, 과학을 “시화”(poétiser)하려 한 낭만주의처럼 분할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시의 현존이 사막의 표면을 바꾸는 물과 같기 위해서는 시가 약속인 것으로 충분하다.”<sup>25</sup>

18세기는 멜랑콜리의 역사에서도 결정적이다. 체액론에 대한 의심은 돌이킬 수 없고, 신경계를 탐사하는 의학이 그것을 대체하려 한다. 19세기로 넘어갈 무렵이면 한편에서는 멜랑콜리 등 정신질환을 관념과 상상의 문제로 보고 “정신적 치료”(traitement moral)를 주장하는 근대 “정신의학”(psychiatrie)이 탄생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낭만주의가 “[멜랑콜리의] 매력과 시”를 말하게 하고, 그것을 “문학과 예술의 유행”으로 만든다.<sup>26</sup> 곧 정신의학은 “멜랑콜리”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것에 큰 불만을 느낀다. 19세기 초 프랑스 의사 장-에티엔 에스키롤(Jean-Étienne Esquirol)은 신조어 “lypémanie”(비애광)를 제작하고, ‘함몰’, ‘침하’를 일반적으로 뜻하던 “dépression”이 머지않아 우울증의 의학적 용어로 제안된다. 이렇게 멜랑콜리를 말하는 과학적 언어와 시적 언어가 구별되고 확립된다.

두 언어의 분화에 따라 멜랑콜리는 둘로 나뉘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방금 우리는 스타로빈스키의 관찰 속에서 두 언어의 분화가 절연이 아니라 세계의 “이중화”라는 것, 이 분화를 전제로 두 언어 각각은 세계를 통일적으로 해명하려고 애쓴다는 것, 무엇보다 멜랑콜리의 본질은 두 언어의 교묘한 교착에 있다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사실 속에 있는 은유, 개념 속에 있는 상상으로서 멜랑콜리를 사유한다는 것은 근대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은폐된 은유에 대한 비평은 우선 무리하게 통합적이지 않고 언어의 분

24 Jean Starobinski (1977), p. 156.

25 Jean Starobinski (1977), p. 157.

26 Art. “Mélancolie,”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8e éd., [https://artflsrv04.uchicago.edu/philologic4.7/publicdicos/bibliography?results\\_per\\_page=25&start\\_date=&end\\_date=&group\\_by=head&head=melancolie](https://artflsrv04.uchicago.edu/philologic4.7/publicdicos/bibliography?results_per_page=25&start_date=&end_date=&group_by=head&head=melancolie)

화를 존중한다. 따라서 스타로뱅스키의 멜랑콜리 비평은 의학사 혹은 문학사/철학사 중 어느 한 영역을 선택함으로써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이 영역의 구분이 선형적이거나 개념적이지 않고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구분은 분리된 것의 근본적 비판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이것을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 1970년 저작 『비평의 관계』(*La relation critique*)에 수록된 글들을 훑어보는 것이다.

먼저 언어의 분화 이후 상상적 언어에 대한 비평의 역사에서 스타로뱅스키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확인해 보자. 「상상 개념의 역사를 위한 쫓말들」(*Jalons pour une histoire du concept d'imagination*)에서 그는 고대에서 근대까지 상상 관념의 변천을 지나치게 도식화하지만, 이것은 그 자신의 비평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전통적 비방에 맞서 상상을 세계 구성과 변혁의 첫째 원리로 삼으려는 낭만주의적 흐름은 결국 과학적 사유의 확대와 함께 좌절한다. 이 실패 후에 외부 세계를 포기한 상징주의적 상상 속에서, 인간의 상상적 활동은 “내적 공간”에 침잠하여 “무한히 다양한 외양 밑에 있는 그 자신의 이미지를 드나드는 것”이다.<sup>27</sup> 스타로뱅스키에게 20세기 초 등장한 정신분석은 상상에 다시 “우주적 힘”(force cosmique)을 부여하는 노력으로 규정된다. 적어도 상상의 역사에서 정신분석은 낭만주의의 후예다.

이때 스타로뱅스키가 정신분석에 대비하여 다시 참조하는 대상이 바슐라르다. 바슐라르는 “상징에 독립된 실체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유혹”을 회피했고, “어떤 주관적 출발점, 즉 몽상과 경탄의 ‘코기토’(cogito)”에 천착했다.<sup>28</sup> 우리는 “과학정신” 형성의 장애물로서 은유와 “실체적 상상”을 규탄한 바슐라르가 이후 인간의 시적 능력으로서 상상력의 논리를 탐구했다는 사실을 안다. 은유는 과학일 수 없지만, 거기에도 어떤 “조화”와 “통사론”이 있

27 Jean Starobinski (2001), *La relation critique*, Paris: Gallimard, p. 222.

28 Jean Starobinski (2001), p. 226.

다. 그러므로 “몽상의 물리학 혹은 화학의 토대”, “몽상의 객관적 조건들”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sup>29</sup> 상상의 “통사론”을 구성하려는 바슐라르가 체액론과 긴밀히 연관된 고대 4원소론에서 자신의 방법을 끌어내는 것은 흥미롭다.<sup>30</sup>

하지만 스타로뱅스키는 바슐라르의 미진함을 지적한다. 과학의 진보를 믿기에 시적 세계의 주관적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바슐라르는 상상력의 “인식적”(cognitif) 측면에 매달렸다. 스타로뱅스키는 더 “완전한 비평”을 위해, “현실과 비현실의 층위들에 대한 감별연구(étude différentielle)”, “모든 문학적 창조와 분리할 수 없는 ‘최소의 상상계’를 ‘증가된 상상’(착란적 픽션의 상상)과 분리하는 거리”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sup>31</sup> 간단히 말해, 스타로뱅스키는 상상력의 역사와 개념에 유의하면서, 동시에 실천적 측면 즉 특정 환경과 현실 속에서 특정 주체가 상상력을 사용하고 변형시키는 조건과 결과를 추적하는 것을 자신의 비평적 임무로 삼는다. 그의 질문은 이런 것이다. 개인은 왜, 어떻게 상상의 힘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가? 상상은 특정 주체를 통해 어떻게 역사화되는가? 이때 상상은 현실 혹은 비상상적 요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은폐된 은유로서 서구 주체성의 발생과 진화의 장인 멜랑콜리가 이러한 비평의 탁월한 대상이라는 점은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29 가스통 바슐라르(2007), 김병욱 역, 『불의 정신분석』, 이학사, p. 197.

30 “우리는 상상력의 영역에서 불, 공기, 물, 흙 중 어느 것에 결부되느냐에 따라 여러 질료적 상상력을 분류하는 ‘4원소의 법칙’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 [고대의] 철학 체계들에서는 학문적 사유가 원초적인 질료적 몽상과 결부되어 있으며, 영속하는 고요한 지혜가 실체의 항구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나아가 이 단순하고 강력한 철학들이 여전히 확신의 근거를 갖는 까닭은 우리가 그것들을 연구할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상하는 힘을 재발견하기 때문이다.” 가스통 바슐라르(2020), 김병욱 역, 『물과 꿈』, 이학사, p. 11.

31 Jean Starobinski (2001), p. 228.

#### 4. 문학사와 의학사에서

스타로뱅스키의 문학비평에서 사례 들을 언급한다.

1960년,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와 같은 해에 발표한 『운동하는 몽테뉴』(*Montaigne en mouvement*)의 한 챕터<sup>32</sup>에서, 스타로뱅스키는 16세기 프랑스 작가 몽테뉴(Michel de Montaigne)의 멜랑콜리를 진찰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몽테뉴의 체질이나 병적 증상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아니다. 멜랑콜리와 창조적 힘의 관계가 다시 조명되고 점성학과 결합한 르네상스 문화 속에서, 몽테뉴는 글쓰기 기획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쓰는 행위의 복잡성을 해명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멜랑콜리의 의학사, 문화사를 전용하여 그의 내면에 적용한다. 고독, 과도한 자의식, 역설적 창조성 등의 멜랑콜리 상태들과 체질, 정신신체학적 증상, 체액의 구성 등의 신체적 특성들이, 자아에 대한 글쓰기를 설계하고 설명할 때 동원된다. 몽테뉴는 자신의 체질과 성격에서 글쓰기를 발생시키는 멜랑콜리의 내적 긴장을 고안하려 한다.

다른 예로, 1989년 『거울에 비친 멜랑콜리』(*La mélancolie au miroir*)<sup>33</sup>에서 스타로뱅스키는 19세기 중반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시 「백조」(*Le cygne*)를 분석한다. 보들레르는 멜랑콜리 의학과 그 예술적 전용이 힘을 다할 무렵, 아랑곳하지 않고 「백조」를 멜랑콜리 증상의 여러 이미지로 채운다. 그중 하나는 씯구 “나는 생각한다”(je pense)의 반복이다. 이 요소는 시의 다른 멜랑콜리 관련 이미지들로 인해 우울증의 주요 증상인 강박적 사고의 양태처럼 읽힌다. 하지만 시에 대한 치밀한 독서는 다른 사실을 보여 준다. 보들레르는 자신의 우울을 그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형적 이미지를 가져와 강박적 사유가 바로 그 운동을 통해 고립을 깨

32 Jean Starobinski (1982), “Le dédoublement, les monstres, la mélancolie,” *Montaigne en mouvement*, Paris: Gallimard, pp. 33-41.

33 Jean Starobinski (1989), *La mélancolie au miroir. Trois lectures de Baudelaire*, Paris: Julliard.

고 타자로 열리는 양상을 포착하려 한다. 이것은 멜랑콜리의 신체적 기제를 이용하여 데카르트적 코기토의 고독을 뛰어넘으려는 전략이다. “임상의에게 되새김은 멜랑콜리 상태의 한 가지 징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 상태는 메말라 “단일관념광”(monodéisme)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의 반복에서 멜랑콜리적 되새김의 한 가지 형태를 보아야 하는가? 오히려 이것은 의식을 소생시키고 해방의 시간을 여는 노 젓기, 호흡 재개가 아닐까?”<sup>34</sup>

스타로뱅스키에게 몽테뉴와 보들레르의 멜랑콜리는 전기 연구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화도, 창조성의 신비한 원인도 아니다. 그들은 각자 멜랑콜리의 문화사 속에 자신의 활동을 위치시키며, 그러한 문화가 제공하는 관념과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당대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쓴다. 몽테뉴와 보들레르의 멜랑콜리는 신체 혹은 신체의 문화와 함께 사유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스타로뱅스키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많은 작가의 텍스트를 멜랑콜리 문화사의 맥락에서 해석한다.<sup>35</sup> 그리고 그들 각각에게 “멜랑콜리의 사유”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의미를 지닌 채 작동한다. 반복하는 말이지만, 스타로뱅스키는 바슐라르처럼 유형화하거나 피조처럼 철학적 본질을 탐구하지 않고 각 주체의 실천적 개별성을 관찰하는 편이다.

우리는 위에서 스타로뱅스키에게 문학비평의 기본 원리만 살펴보았을 뿐, 그의 의학사 연구의 목적을 검토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비평의 관계』에 의학사 작업을 정초하는 글이 없기 때문이다.<sup>36</sup> 하지만 이 책에는 멜랑콜리와 정신의학의 역사에 관련된 중요한 글 두 편이 수록되어 있다.

34 Jean Starobinski (1989), p. 76.

35 2012년 공개된 멜랑콜리 연구 모음집 『멜랑콜리의 잉크』를 보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 또한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책에 수록되었다.

36 스타로뱅스키의 관념사(histoire des idées)와 의학사의 연관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1999년 출판된 『작용과 반작용』(Action et réaction)과 같은 저서를 연구해야 할 듯하다. 이 책에 대한 조사와 소개는 추후 작업으로 남겨 둔다. Cf. Jean Starobinski (1999), *Action et réaction. Vie et aventures d'un couple*, Paris: Seuil.

사례들을 통해 원리를 추출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동물정기에서 리비도까지) 상상적 유체의 역사에 대해」(Sur l'histoire des fluides imaginaires (des esprits animaux à la libido))<sup>37</sup>에서 저자는 르네상스 시기 보다 정신분석까지 인간 신체 안에 흐른다고 상상된 유체의 이미지를 추적한다. 18세기까지 멜랑콜리의 역사가 흑담액이라는 상상적 유체의 역사라면, 그러한 믿음이 부정된 후에도 의학과 철학은 계속해서 인간 안에 미지의 액체를 가정했다. 의학적 사유의 이 끈질긴 상상은 어째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상상의 불운으로서 질병 (정신신체의학)」(La maladie comme infortune de l'imagination (La médecine psychosomatique))<sup>38</sup>에서는, 19세기 독일 정신의학자 하인로트(Johann Christian August Heinroth)의 영향 아래 정신분석과 함께 전개된 정신신체의학의 개념을 분석한다. 상상은 오랫동안 의학에 낯선 것이었으나, 정신분석으로 인해 다시 의학적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정신분석은 상상적 요소를 물질이나 에너지의 형태로 “신체화”(somatisation)한다. 하지만 신체에 대한 정신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다루는 정신신체의학에는 내적 긴장이 있다. 스타로뱅스키는 20세기 헝가리계 미국인 정신의학자인 프란츠 알렉산더(Franz Alexander)의 이론을 검토하면서 이 점을 밝힌다. 상상적이고 정신적인 요소와 신체적인 요소 사이의 관계는 유동성과 자의성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 또한 이 관계 안에서 의학적 사고는 증상을 주체의 은폐된 표현으로 해석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sup>39</sup>

37 Jean Starobinski (2001), pp. 230-248.

38 Jean Starobinski (2001), pp. 249-274.

39 “사회적 세계에서 우리가 완수하는 제스처와 반대로, 여기서 기호는 신체를 초월하지 않고, 신체에 흡수되어, 에너지를 자신 안에서 소비한다. 기호는 육화됨으로써 기호의 가치를 고통과 불운의 외면 아래 감춘다. 주체는 자신을 표현하지만,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의 자유는 즉각 운명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숨김으로써—이것이 그의 병의 의미다—, 그는 피해자의 자리에 들어간다...” Jean Starobinski (2001), p. 267.

두 의학사 연구는 멜랑콜리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구들이 멜랑콜리 문화의 근대적 변이를 추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상상적 유체의 문제와 정신-신체 관계의 복잡성 문제는 멜랑콜리 관념의 주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문학비평과 마찬가지로 의학비평에서도, 스타로뱅스키는 근대인에게 멜랑콜리 문제의 변천과 대응을 개별 의학 담론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의 핵심적 구조는 여전히 상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좁처럼 풀리지 않는 연관이다.

문학사와 의학사 양 측면에서, 스타로뱅스키가 강조하는 것은 과학적 언어와 상상적 언어의 분화 이후 그러한 문화적 조건 위에서 근대인이 겪는 곤란함과 모색이다. 둘은 분리되어 각자의 장르와 개념과 방법을 확립했지만, 과학적 언어는 상상적 언어를 떠나지 못하고 상상적 언어는 과학적 언어에 의지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대인은 인간과 세계 그리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두 언어의 새로운 결합 혹은 관계를 고안한다. 고대부터 이 관계의 대표적 표현이었던 멜랑콜리는 문학과 정신의학이라는 근대의 두 지식, 그리고 둘의 관계에 역사적이고 개념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우리는 스타로뱅스키에게 과학적 언어와 시적 언어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언어의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그 관계의 동역학이며, 스타로뱅스키는 현재의 계보학[이라는 그의 작업]의 뿌리에 이 동역학을 둔다.”<sup>40</sup>

## 5. 적용: 장르로서 우울증 수기

스타로뱅스키는 고대에 형성된 멜랑콜리 문화의 근대적 변이를 특정 주체나 담론, 혹은 예술적 표현을 통해 추적한다. 목적은 근대인이 자신의

— [www.kci.go.kr](http://www.kci.go.kr)

40 Aldo Trucchio (2021), p. 214.

주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고안하는 사례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모든 문화가 그렇듯 개별 사례에서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규정하는 원리나 본질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멜랑콜리 문화의 경우 원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은유의 역설적 존재, 신체와 영혼, 자연과 문명의 은유적 관계, 사회적 삶 안에서 언제나 문제로 남는 고독한 개인, 의학적 지식과 철학적 지식의 얽힌 관계 등이다.

나는 스타로벤스키가 남긴 멜랑콜리 연구의 교훈을 현대사회에 적용하는 한 가지 시도를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체액론의 폐기와 과학적 사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멜랑콜리 문화의 표현을 현대적 주체성의 자기탐구 양식에서 읽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최근 급증하는 우울증 수기를 하나의 장르로 진지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이 제안을 예증하는 일은 스타로벤스키와 멜랑콜리 연구의 주요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예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어쩌면 스타로벤스키가 분석한 여러 작가, 예술가의 그 많은 텍스트는 일종의 우울증 수기였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수기(memoirs)라는 장르를 단순히 개인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결과로 보지 않고, 특정 경험 속에서 각 주체가 역사적 상황과 개인적 특성, 그를 둘러싼 관계들과 지식들의 체계를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위한 최적의 관념과 표현을 찾는 행위로 이해할 때만 유효하다.

이 장르는 최근 등장했다. 멜랑콜리 체험에 대한 표현이야 고대부터 풍부하지만, 일상을 사는 개인이 사실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기 경험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형태는 199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서 이정표는 미국 작가 윌리엄 스타이런(William Styron)이 1992년 출판한 『보이는 어둠』(*Darkness Visible*)이다. 지금까지 이 텍스트는 가장 널리 인용되는 우울증 수기다.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부족했던 1980년대 말, 스타이런은 프리모 레비(Primo Levi)의 자살(1987)을 “배신”이자 “비겁”으로 여기는 시선에 경악하여 우울증의 현실을 알리는 글을 쓰기로 결

심한다. 그 자신이 극심한 우울증에서 점차 벗어나던 때였다. 폴리처상 수상 작가였던 스타이런은 표현과 이해를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 체험을 기술하기 위해 개인적 경험은 물론이고, 주변 문학계 인사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자신의 모든 글쓰기 기술을 동원했다. 한편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에 달한다.<sup>41</sup> 자살률 1위 기록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우울증 수기의 범람은 자연스러울 것이고, 실제로 2022년에만 10여 종의 책이 나왔다. 하지만 평범한 한국인이 쓴 우울증 수기가 등장한 것은 2012년 전후로, 고작 10여 년 전이었다. 서구권의 경우나 한국의 경우나, 우울증 수기의 최근 등장은 멜랑콜리 현상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특정 인식과 표현 양식이 역사적 조건에 제한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한국에서 이 장르는 아직 미성숙하다. 많은 책이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 고민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수기들을 하나의 문학 장르로, 우리 시대 주체성의 대표적 증언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적 환기로서, 스타이런의 『보이는 어둠』과 최근 한국에서 출판된 이진솔의 『이제는 안 우울합니다만』을 통해 장르의 기본 규칙을, 언제든지 변경되고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장르의 첫 번째 특성은 말할 수 없는 것과 언어의 관계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려 할 때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 우울증은 소외의 다른 이름이라, 타인의 이해는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거부된다. 게다가 환자 자신에게조차 이 고통은 부위도, 정체도 인지되지 않는 미지의 감각이다. 그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할 수 없다. 우울증의 고통은 신체와 영혼, 개인과 사회 사이에 있다. 글은 이

41 OECD (2021), "Tackling the Mental Health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An Integrated, Whole-of-Society Response,"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Paris: OECD Publishing. <https://www.oecd-ilibrary.org/sites/f9c64182-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f9c64182-en>.

사실을 드러내는 마지막 수단이다.

내가 이 병을 깨닫기 시작한 방식은 정상적인 경험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우울증으로 인한 공포의 잿빛 이슬비는 육체적인 고통의 형태를 띠었다. 하지만 그것은 골절상을 당한 고통처럼 즉각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병든 뇌에 깃들인 정신, 그리고 그 정신에 작동하는 사악한 속임수가 초래한 절망은 과열된 방에 감금된 존재가 느끼는 참혹한 불쾌감과 흡사했다. 끓어오르는 가마솥을 스치는 미풍조차 없었다. 이런 질식할 것 같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으므로 끊임없이 [절멸을] 생각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sup>42</sup>

그래서 우울증 수기들은 은유에서 은유로 떠돈다. 너무나 뜨겁지만 나갈 수 없는 방의 유명한 비유는 스타이런의 책에서 단 하나의 멋진 비유가 아니다. 한편 이진솔은 소박하게 기술한다.

우울증에는 통증도 있다. 아니 통증이라는 건 감각기관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울증에도 통증이 수반된다. 우리의 뇌는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면 신체적인 고통과 유사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쿵쿵 찡뚱이 아프다가 진짜 뭔가가 쿵쿵 내려 찡뚱이 아픈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지 멀쩡하고 어디 피 흘리는 곳도 안 보이니 저 사람이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밖에.<sup>43</sup>

문장은 서툴지만, 그 덕분에 우울증 현상의 비유적 본질을 드러낸다. “마음이 쿵쿵 찡뚱이 아프다가 진짜 뭔가가 쿵쿵 내려 찡뚱이 아픈 것과 같

42 윌리엄 스타이런(2002), 임옥희 역, 『보이는 어둠』, 문학동네, p. 61.

43 이진솔(2022), 『이제는 안 우울합니다만』, 하모니북, p. 103.

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듯이”, “...듯이”, “...과 같다”가 중첩되면서 우울증 의식의 비유의 운명이 강조되고, 정신과 신체 사이의 풀릴 수 없는 상호 은유 관계가 암시된다.

글쓰기와 은유의 기술적 차이는 스타이런과 이진솔의 현실적 상황에 기인한다. 스타이런은 재능 있고 성공한 작가이고, 예순이 넘어 우울증 위기를 겪었다. 반면 이진솔은 사춘기 시절부터 증상을 겪어 온 평범한 20대 여성 회사원이다. 그는 자신의 우울증을 기록하면서, 잊고 있던 글쓰기의 욕망을 재발견하고 장차 웹소설 작가가 되고자 결심한다.

이러한 사회적 차이는 다른 많은 차이와 연관된다. 스타이런은 멜랑콜리 담론의 역사와 내용을 잘 알기에 자신의 사례를 일반적 요소와 관계 속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 주변에는 지식인과 의사가 흔하고, 그는 그들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동원한다. 반대로 이진솔은 오직 개인적 경험과 고통이 유발하는 호기심에 의해 점차 멜랑콜리 담론에 입문한다. 그에게 가족, 친구, 의사와의 관계는 훨씬 큰 어색함 속에 갇혀 있고, 대개 느낌과 초보적 지식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스타이런이 우울증을 통해 사회적 존재의 위기를 겪는다면, 이진솔은 우울증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함께 사회화되어야 한다.

몽테뉴와 보들레르에 대한 스타로뱅스키의 독서에서 보았듯이, 멜랑콜리 의식은 당대 의학적 지식을 포함한 역사적이고 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며, 이것을 신체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추로 실행한다. 우울증 수기에서는 이 요소들이 발병, 경과, 위기, 회복의 병리적 단계를 따라 작동한다. 각 단계에서 독자는 환자를 둘러싼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이 그의 주관성의 갱신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목격하게 된다. 스타이런과 이진솔의 병리적 자기 관찰에서 가족, 사고, 직장, 병원, 기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단위 등 사회적 제도들이 멜랑콜리 의식에 의해 근본적 수준에서 분석, 비판된다. 이와 동시에 자기반성, 삶에 대한 혐오와 위로의 교차가 자아 수준에서 기계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새로운 총체적 인식에 이른다.

이것이 모든 심각한 질병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이때 우울증 수기를 다른 수기들과 구별하는 주요 변별점은, 우울증의 경우 그 의식의 기저에 언제나 삶에 대한 극단적 혐오, 삶의 불가능성에 대한 은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울증 수기의 구조적 특성을 발생시키는 요소는 자살의 유혹과 그 극복이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전면적 재인식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삶을 부정하는 이 충동이다. 멜랑콜리 의식의 부정성은 언어와 삶을 동시에 노리며, 침묵과 죽음이 이 의식의 고유한 주제다. 우울증 수기는 현대문학의 새로운 장르가 될 수 있는 필수조건을 갖추어 두었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환자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수기를 쓸 일이 없을 것이다. 수기의 존재는 치료의 성공을, 적어도 원인이 불분명한 호전을 전제한다. 그는 병 이전의 상태와 병중인 상태의 비교에, 병 이후의 새로운 상태를 추가한다. 삶을 근본적으로 회의한 의식은 그 경험으로부터 삶의 의미 하나를 도출해야 한다. 신체적 변화는 의미 도출을 위한 좋은 근거 혹은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신체적 사유가 덜 독창적이거나 덜 지성적인 것은 아니다.

스타이런과 이진솔의 두 의식은 그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멜랑콜리의 오랜 주제를 공유한다. 그것은 멜랑콜리와 문학의 관계다. 그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병의 주요 단계에서, 우울증은 문학을 유발하는지, 우울증은 훌륭한 문학의 방법인지, 우울과 문학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한지, 문학은 우울증의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런 질문들을 거친 후 둘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경험과 관련하여 하나의 공통 이념, 공통 은유를 발견한다. 둘은 이를 통해 기존 멜랑콜리 문화에 근대적 변이 하나를 추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이 그 자체로 문학적 행위라는 것이다.

우울증의 어두운 숲에 거주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고뇌에 시달리는 사

람들에게, 심연으로부터의 귀환은 시인의 비상과 다르지 않다. 깊이 모를 지옥의 심연에서 위로 위로 힘겹게 걸어 올라와 마침내 ‘눈부신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된다. 건강이 회복된다면 평정과 기쁨을 즐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회복한다. 이것이야말로 절망을 넘어선 절망을 건넌 자들에게 돌아가는 충분한 보상이리라.

그래서 우리 빠져나왔도다, 다시 한 번 별을 보게 되었노라.<sup>44</sup>

스타이런은 장엄하게 단테의 『지옥』에서 마지막 문장을 가져왔다. 이 진술은 계속 소박하다.

지금은 나를 사랑하기를 넘어서 나 이외의 무언가를 사랑하는 삶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에게 사랑받기보다는 타인을 사랑하는 일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늘 타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갈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삶보다 좀 더 차원 높은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좋아해 주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되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가 갖고 싶다.

사랑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침없이 ‘글쓰기’라고 말한다.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일, 그것들이 재밌다. 그리고 내가 토해낸 맞춤법도 잘 맞지 않은 서툰 글이 좋다. 서툰면 서툰 맛이 좋고, 매끄럽게 잘 써내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어? 하고 감탄하게 된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돌려받는 일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사랑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고통스럽긴 했지만 사랑할 때가 더 나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무언가를 사랑하고 싶다. 다시금 삶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싶다.<sup>45</sup>

44 윌리엄 스타이런(2002), p. 102.

45 이진술(2022), p. 148.

지옥 같은 어둠을 아는 사람만이 한 번 더 별을 볼 수 있다. 사랑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사람만이 사랑을 자유의 이념과 결합할 수 있다. 모든 우울증 수기는 회복의 감각 속에서 쓰인다. 극히 고통스러운 은유의 한계 뒤에는 재활성화된 생명이 꿈틀대고 있다. 문학은 멜랑콜리의 의식으로부터 어떻게든 삶을 창출한다. 이브 에르상(Yves Hersant)은 스타로뱅스키의 멜랑콜리 연구를 결산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말은 체험보다 더 강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 혹은 불가능성으로부터 그에 대해 말하는 가능성으로 이동한다.”<sup>46</sup>

## 6. 섬세한 냉정

멜랑콜리는 사회적 존재 안에 있는 고독의 진실이며, 삶과 다르지 않은 삶의 불가능성이다. 그것은 사실 뒤에 있는 은유로 자신을 드러낸다. 멜랑콜리는 고통스러운 은유의 운명이다. 스타로뱅스키는 의사이자 비평가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대인으로서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멜랑콜리는 하나인가, 둘인가? 스타로뱅스키에게 멜랑콜리는 둘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둘이지만 언제나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인식된다. 실체화되곤 해도, 멜랑콜리는 개인과 사회, 몸과 마음, 자연과 문화의 풀리지 않는 관계를 지시할 뿐이다.<sup>47</sup>

46 Yves Hersant (2013), “Poétique mélancolique,” *Critique* 791, p. 301.

47 이 점에서 우리는 한국어로 된 유일한 선행연구에 동의하지 않는다. 「스타로뱅스키의 멜랑콜리 연구에 나타난 시간의 주관성」에서, 장상숙은 스타로뱅스키가 “멜랑콜리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장상숙(2001), 「스타로뱅스키의 멜랑콜리 연구에 나타난 시간의 주관성」, 『한국프랑스학논집』 34, p. 273]한다고, 그 원인이란 소외와 좌절 등에 의한 “내적 시간과 외적 시간의 불일치”[장상숙(2001), p. 293]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멜랑콜리의 실체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스타로뱅스키의 관심이 아니다. 그의 시선이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장상숙(2001), p. 294]을 숙고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시선은 역사적이며, 특히 근대인에게 주관성의 역사적 발생을 멜랑콜리 관념의 역사 안에서 조명한다. 이를 위

이 관계의 여러 유형 중 특히 의학과 주관적 담론들 사이 관계를 강조하고 싶다. 1963년 발표한 『의학사』(*Histoire de la médecine*) 서두에서, 스타로뱅스키는 의학의 역사를 구성하는 세 항의 관계를 언급한다.<sup>48</sup> 병과 의사의 관계는 지식의 객관적 진화에 따라 역사적이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앞선 관계와 연관되어 있어도 “문화와 사회의 변형 그 자체인 어떤 변형들에 종속된다.” 이 인격적 관계 또한 역사적이다. 왜냐하면 “의사의 형상 자체 그리고 그를 환자와 연결하는 결합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타로뱅스키는 세 항 사이 가능한 한 가지 관계를 의학사에서 누락한다. 그것은 환자가 자신의 병과 맺는 관계다. 분명히 의학사와 관련이 없지 않을 이 관계는 스타로뱅스키의 의학사가 아니라 문학 등 주관성의 담론 분석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장애물』에 수록된 「루소의 질병에 대하여」가 이후 연구의 많은 것을 암시한다. 스타로뱅스키가 판단하기에 예술가의 질병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정신을 특정 신체적 상태로 환원하려는 “평균화”의 천박한 욕망을 드러낸다.<sup>49</sup> 우리는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 “먼저 우리는 루소의 의식 자체에서 질병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질병을 견뎌냈는지, 그가 고통을 잘 받아들였나 못 받아들였나, 그가 만족했는가 아니면 이 고통을 무시하려고 했는가를 아는 일이다. [...] 루소가 자신의 질병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이 질병이 그의 존재와 글쓰기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 항상 생각해 볼 수 있

---

해 그는 개별 주체들에게서 멜랑콜리의 경험, 인식, 실존적이고 예술적인 전용을 추적한다. 장상숙이 지적하는 것은 멜랑콜리의 보편적 증상일 뿐이다. 게다가 이 주관성의 역사는 의학과 문학의 복합체를 통해 구성되기에, 두 분과 중 어느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장상숙의 연구는 이 사실 또한 간과한다.

48 Jean Starobinski (2020), *Histoire de la médecine*, Genève: Héros-Limite, pp. 21-22.

49 장 스타로뱅스키(2012), 이충훈 역, 「루소의 질병에 대하여」, 『장 자크 루소: 투명성과 장애물』, 아카넷, pp. 711-712.

다.”<sup>50</sup> 의학사의 세 번째 관계는 주관적 언어의 역사적 변천을 분석하는 비평으로 탐구된다. 따라서 완전한 의학사는 문학사를 포함하며, 완전한 문학사는 의학사가 조명하는 인간과 신체의 문제를 포함한다.

2004년 잡지 『정신의학, 인간과학, 신경과학』(PSN)과 가진 인터뷰에서 스타로뱅스키는 멜랑콜리에 대한, 우아하지만 끔찍한 정의를 제시한다. “멜랑콜리의 의식”, 그것은 “즉자에서 좀체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자”(un pour soi mal dépêtré de l'en-soi)다.<sup>51</sup> 이때 “감정과 감각은 뒤엎히고”, 불행과 고통은 같은 것이다. 멜랑콜리의 “체감”(cénesthésie)은 유능한 의사조차 짐작하기 어렵다고 한다. 의사로서 직접 관찰했으며 여러 보고와 연구에서 접했다 해도 그것을 철학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례한 일이 아닐까? 하지만 다시 읽어 보라. “즉자에서 좀체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자”는 개념의 정확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존중한다. 스타로뱅스키는 좋은 의사인 동시에 좋은 철학자여야만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으로 그는 멜랑콜리 현상을 과학의 투박한 경멸로부터 구해 내고, 객관적 지식에 마땅한 조심성과 겸손을 요구하며, 그러면서도 멜랑콜리 관념을 물들인 그 모든 낭만주의적 색체에 초연할 수 있었다. 그런 덕분에 그는 각 주체를 단순한 병명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환자로 정당하게 대우했다. 그런 덕분에 그는 근대 예술가들이 불모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검은 체액을 어떻게 상상하고 대면하는지, 그것과 본능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를 통해 그들이 자신의 주관성을 어떤 독특한 상상적 기제로 구성하는지, 결국 그들이 펜에서 흘러나오는 잉크의 검은 빛을 바라보며 어떤 착란에 빠져드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은유 앞에서 냉정하고 섬세해야 한다. 특히 그것이 우리의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은밀히 지탱하고 있을 때는.

50 장 스타로뱅스키(2012), p. 718.

51 Jean Starobinski, Bernard Granger, et François Ménard (2019), “Autour du couple action-réaction, Entretien avec Jean Starobinski,” PSN 17, p. 24.

## 참고문헌

### 자료

- 박혜정(2015), 『멜랑콜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스타로뱅스키, 장(2023), 김영옥 역, 『멜랑콜리 치료의 역사』, 인다.
- 스타로뱅스키, 장(2012), 이충훈 역, 『장 자크 루소: 투명성과 장애물』, 아카넷.
- Aristote (2006), *L'homme de génie et la mélancolie. Problème XXX, 1* (ed. Jackie Pigeaud), Paris: Payot & Rivages.
- Klibansky, Raymond, Erwin Panofsky, and Fritz Saxl (2019), *Saturn and Melancholy*, new edition, Montreal & Kingston; London; Chicago: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Starobinski, Jean (2020), *Histoire de la médecine*, Genève: Héros-Limite.
- Starobinski, Jean, Bernard Granger, et François Ménard (2019), "Autour du couple action-réaction. Entretien avec Jean Starobinski," *PSN* 17, pp. 7-26.
- Starobinski, Jean (2012), *L'encre de la mélancolie*, Paris: Seuil.
- Starobinski, Jean (2001), *La relation critique*, Paris: Gallimard.
- Starobinski, Jean (1999), *Action et réaction. Vie et aventures d'un couple*, Paris: Seuil.
- Starobinski, Jean (1989), *La mélancolie au miroir. Trois lectures de Baudelaire*, Paris: Julliard.
- Starobinski, Jean (1982), *Montaigne en mouvement*, Paris: Gallimard, pp. 33-41.
- Starobinski, Jean (1977), "Langage poétique et langage scientifique," *Diogène* 100, pp. 139-157.

### 논저

- 바슐라르, 가스통(2020), 김병옥 역, 『물과 꿈』, 이학사.
- 바슐라르, 가스통(2007), 김병옥 역, 『불의 정신분석』, 이학사.
- 스타이런, 윌리엄(2002), 임옥희 역, 『보이는 어둠』, 문학동네.
- 여인석(2021), 「근대정신의학 성립기의 멜랑콜리 개념의 분화」, 『연세의사학』 24(2), pp. 61-81.
- 여인석(2020), 「멜랑콜리 개념의 기원과 분화를 통해 본 몸과 마음의 관계」, 『의철학연구』 29, pp. 53-75.
- 이진솔(2022), 『이제는 안 우울합니다만』, 하모니북.
- 장상숙(2001), 「스타로뱅스키의 멜랑콜리 연구에 나타난 시간의 주관성」, 『한국프랑스학 논집』 34, pp. 273-296.
- 크레이머, 피터 D(2006), 고정아 역, 『우울증에 반대한다』, 플래닛.
- Bachelard, Gaston (1996), *La formation de l'esprit scientifique*, Paris: Vrin.

- Hersant, Yves (2013), “Poétique mélancolique”, *Critique* 791, pp. 292-301.
- Pigeaud, Jackie (2008), *Melancholia*, Paris: Payot & Rivages.
- Pigeaud, Jackie (2006), *La maladie de l'âme*, Paris: Les Belles Lettres.
- Pigeaud, Jackie (2005), *De la mélancolie*, Paris: Dilecta.
- Pigeaud, Jackie (1984), “Prolégomènes à une histoire de la mélancolie,” *Histoire, économie et société* 3.4, pp. 510-510.
- Trucchio, Aldo (2021), *Les deux langages de la modernité. Jean Starobinski entre littérature et science*, Lausanne: Éditions BHMS.

### 사전, 보고서

-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8e éd., 1932: <https://artflsrv04.uchicago.edu/philologic4.7/publicdicos>
- OECD (2021), “Tackling the Mental Health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An Integrated, Whole-of-Society Response,”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Paris: OECD Publishing. <https://www.oecd-ilibrary.org/sites/f9c64182-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f9c64182-en>

원고 접수일: 2023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2023년 7월 30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8일

## ABSTRACT

# The Concealed Metaphor

Kim, Younguk\*

Jean Starobinski and the  
Research on Melancholy

Through more than half a century of research, from *Histoire du traitement de la mélancolie* (1960) to *Encre de la mélancolie* (2012), Jean Starobinski became a leading historian of ideas on melancho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k what the definition, history, and implications of melancholy are from Starobinski's long conducted investigation in both medical history and literary history. The paper proceeds in the following steps. First, from *Histoire du traitement de la mélancolie*, the ess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henomenon of melancholy and metaphor is extracted and defined as *concealed metaphor*. Then, focusing on *Relation critique* (1970), it examines, in the history of melancholy, the consequences of a condition of modernity: the differentiation of scientific language and poetic language. On this historical condition, melancholy serves as a mode in which modern subjectivity is devised through the various intersections of two languages. This proposition is supported by cases from both literary history and medical history. *Montaigne en mouvement* (1960) and *Mélancolie au miroir* (1989) are examples of literary criticism, and two medical history treatises included in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ion critique are examples of the study of scientific discourses. Finally, by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seriously treating depression memoirs as an important genre in modern society, this paper reveals one implication of Starobinski's melancholy research and at the same time contributes a piece of evidence to his thought. The "pensée mélancolique", which questions, by considering the problem of metaphor, the essenti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society, mind and body, nature and civilization, is a major foundation of European consciousness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In particular, Starobinski traces the modern aspects of this cultural paradigm by carefully examining individual cases.

**Keywords** Melancholy, History of Literature, Criticism, Imagination, Depression, Metaphor, History of Medicine

